

인주 밀두지구 황해경제구역의 중심도시로... 주거단지 및 대단위 랜드마크를 세워 특화단지로 개발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구로 개발할 인주 밀두지구 전경



인주 밀두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주지구(1302만5000m²)에서 제외되었으나 전체사업대상지가 중심에 위치해 개발이 자유로운 곳이어서 도시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산시는 인주밀두지구를 황해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개발방식, 개발면적, 사업추진 시기 등을 결정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는 시혜인권의 첨단전자정보산업의 메카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기능, 교육·주거기능, 국제업무·상업기능, 관광·위락기능을 도입하였기에 이와 연계하여 인주 밀두지구에는 주거단지 및 대단위 랜드마크를 세워 특화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3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주 밀두지구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도시로 만들 계획”의 성패 여부는 개발시기가 중요하며, 개발방식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제 중심도시로 부각되길 기대한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주지역 개발방향은

2007년 12월 21일 새만금, 대구·경북과 함께 선정되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급년 4월 25일 중앙정부로부터 공식 지정됨에 따라 아산시는 인주지구 1만 302만m²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경기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5개 자치단체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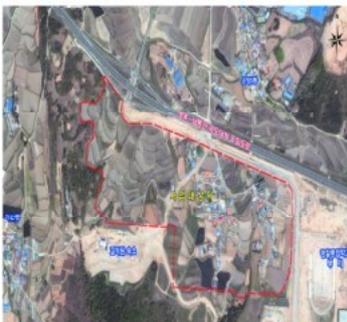
특히 아산은 역사, 문화·관광 자원의 집적지로서 관광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접 시·군의 황해경제자유구역보다 자연환경이 확연히 구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인주지구가 하드웨어적인 기능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배분을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서해안의 한국을 대표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감각을 갖는 임해 국제업무중심도시로 중점 육성개발하고 주거기능 및 공원 녹지, 골목장 및 문화·체육 기능 등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산시는 삼교호지역은 임해 도시기능과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임해지역인 인주 길매리 지역은 관광·레저 등을 중심으로 계획 개발하되, 일부 복합단지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기능과 R&D 기능 및 첨단산업은 쾌적하고 조용한 내륙지역에 배치하여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 산업기능과 함께 레저·휴양 등 기능을 갖추게 되며 아산시는 미래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강화의 중심기지로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아산시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시화



아산시는 경림교육타운의 각종 기능지원과 지역 활성화 도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사동(경찰중합학교 주변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화지박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선행 절차이자 상위계획인 2025년 아산 도시기본계획(안)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승인될 경우 사업추진의 토대가 마련되는 한편 원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와 법적요건인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이 50%이

상 충족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에서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맞춰 충남도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설명과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첨단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격 조성

서부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 신 성장메카로 도약 기대

아산시는 수도권과 동북을 겨냥하여 아산항의 물류유통과 인근 순천향대, 호서대, 선문대, 폴리텍대학등과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R&D 전문단지과 자동차 산업의 잠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아산서부첨단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는 아산시 배미동, 신장면 수장리, 남성리, 선장면

신성리, 공화리 일련 약 10,049,448㎡에 조성되며 제1첨단산업단지(512만㎡)와 제2첨단산업단지(492만㎡) 등 2개단지로 나뉘어 조성될 산업단지로 급년 12월 착공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수) 투자설명회에 현대, 포스코, GS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20개 업체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는 아산시와 건설사 등 투자자들이 공동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 6월 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3개 콘소시엄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제안서에 대한 평가심사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KCC건설 외 5개사가 구성된 KCC 콘소시엄이 선정되었다.

KCC 콘소시엄은 다른 참여업체에

비해 개발이익환수방안과 사업비가 적정하다는 데서 많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서부첨단산업단지는 2008년 8월 SPC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터지와 지장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급년 12월에는 단지를 착공하게 된다.

둔포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기공식

하수종말처리장의 지하화 및 공원화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아산시 둔포면 둔포천 하상주차장에서 12일(목) 오전 11시 강희복 아산시장, 이병수 국회의원과 이기원 아산시 의회

의장 등 내빈과 300여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기공식을 가졌다.

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 보건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수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 처리 할 수 있는 일일 시설 용량 2,9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를 이송할 관거 32.948km와 맨홀펌프장

10개소를 국비 30,100백만원, 도비 6,450백만원, 시비 6,450백만원 등 총사업비 43,000백만원을 투자하여 코오롱건설(주) 및 동화건설(주)에서 시공을 하고, (주)삼안 및 (주)경동기술공사에서 감리를 시행하여 2010년 10월 준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하수처리장 예정위치가 둔포면 소재지와 인접하여 주민 설명회 및 선진 하수처리장 현장 견학 등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공원화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부지(19,778㎡)는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 등 공원화하여 둔포면 주민들의 심터로 제공하므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한다.

기념사에서 강희복 아산시장은 “아산시의 급격한 도시개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스마트 아산을 건설하고자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특단의 재원마련 조치를 취하여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시 전체를 아산, 아산신도시(배방), 둔포, 인주, 도고 선장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조성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주거단지 조성

송악면 강당리 일원에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시행

시가 송악면 강당리 일원에 충청남도개발공사와 공동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5가구 정도의 주거와 문화가 공존하는 신개념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산시가 공동시행 예정인 충청남도개발공사에는 이미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예술인단지에 입주할 희망하는 예술인들에게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아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산시와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아산시 및 충청남도개발공사(www.cndc.kr),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 홍보를 통해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예술인들에게 입주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창작공간 부

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인들의 많은 편여가 기대된다.

시는 강당리 외임민속마을과 더불어 예술인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및 예술체험을 통한 문화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예술인단지를 문화예술의 창작 및 전시, 공연, 축제, 교육의 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장항선 폐철도” 관광자원으로 거듭난다

지나해 12월 21일 자화선이 복선화 및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로 개통함에 따라 발생한 폐철도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해 온 아산시가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6월 5일(금) 10:00 시청 상황실에서 강희복 아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장항선 폐철도부지 관광자원화 활용 용역보고회에서 근 2년 장 15km, 총면적 310,000㎡, 역3개소 등에 대하여 관광객유치 및 인근지역 개발 등에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폐철도 구간을 5개 구간(방축동~신창역, 신창역~학생역, 학생역~선장간이역, 선장간이역~도고온천역, 도고온천역~아산시계)로 나누어 관광자원화할 계획으로, 폐선부지

의 공간별 도인 활용방안으로는 기차조형물, 전시장,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먹거리시설, 꽃동산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산시는 앞으로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아산 문화관광은 제2의 도약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도 제7회 의원회의 개최



▲ 황강성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중인 의원들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2008년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의정실에서 2008년도 제7회 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제5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장 이·취임식 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2008년 6월 20일 ~ 6월 3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22회 제1차 정례회』의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황강성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관

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번 제122회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과 각종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 처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시장집행과 새로운 계획 등 시장전반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第122回 第1次 定例會議事日程

2008. 6. 20 ~ 6. 30(11일가)

일시	차수	분회의	상임위원회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08.6.20 (금) 10:00	1차	[개회식] • 회기결정의 건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원청가 허가의 건 • 휴회의 건				
08.6.21(토)		• 시정질문서 자료수집 및 정리				
08.6.22(일)		• 시정질문서 자료수집 및 정리				
08.6.23 (월) 10:00			• 상임위 활동 • 조례안등 심사 •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례안등 심사 •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08.6.24(화) 10:00	2차	•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8.6.25(수) 10:00	3차	•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8.6.26(목) 10:00	4차	•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8.6.27(금) 10:00	5차	•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8.6.28(토)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자료정리				
08.6.29(일)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자료정리				
08.6.30 (월) 10:00	6차	• 조례안 심의 및 기타안건 등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121회 임시회 폐회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2008. 5. 22~30일(9일간)까지의 제12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추진중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관내 12개소 사업장 방문이 23일 염치를 강령리 산립자연사 박물관 사업대상지를 시작으로 2일동안 이루어졌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아산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지원책구에 대한 여운영의원의 5분발언과 총무대로 개설에 대한 정거록의원의 5분발언도 눈길을 끌

었으며,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14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9%인 640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5. 28~29일까지 2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에서 80억1천1백만원이 삭감되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특히 5월 27일 아산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유동훈)로부터 접수된 청원서 의견을 받아들여 의결하였으며, 여운영의원의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대로3-10의 총무대로개설 권고 결의안과 임광웅의원의 8명의 의원이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운영의원의 5분발언과 총무대로 개설에 대한 정거록의원의 5분발언도 눈길을 끌

제121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내역

▶ 아산시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급변에 준공되는 아산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체력증진 및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종합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모종동 자동차 정류장) : 의견서채택

우리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터미널 시설의 변경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실옥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 의견서채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06.12.28 법률 제8098호) 및 시행(2007.6.29)됨에 따라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2007.4.11)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하고, 환경부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쓰레기 봉투 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 준수 및 형소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쓰레기 봉투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배출스티커)환불 규정 신설과 대형 폐기물품목세분화 및 처리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등 지금까지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 이순신대로 개통에 관한 청원의 건 : 의견서채택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운양운천역을 가로지르는 이순신대로(총무대로)를 계획대로 개통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교통난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대로3-10 총무대로개설 권고결의 : 결의문채택

구도심의 발전과 구도심 내 남북간의 균형적인 개발의 전기가 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총무대로를 개설하도록 아산시장에게 권고하고자 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 : 결의문채택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에 따른 한우 사육농가 및 전체 축산농가와 국민의 생명권보호 모호하고, 국내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일반회계 80억1천1백만원 삭감



[현장방문중인 의원들 모습]



▲ 소신현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대개설에 대한 업무보고 받고 있는 의원들 모습

▲ 5월 27일 아산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유동훈)로부터 접수된 청원서 의견을 받아들여 의결한 의원들 모습

디자인도시 아산, 간판의 새 문화가 열린다



아산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은 과도한 정보·과시·장식성을 위해 대형화, 원색화가 심화되고, 도시의 시각적 공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아산시는 옥외광고물의 규격, 수량,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표시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의 권역별 지정은 20미터 이상 도로변 및 아산신도시 1, 2단계 배

방지구역은 중점권역으로, 미관지구 등은 일반권역으로, 상업권역, 문화재 및 녹지의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인 보전권역은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특별지역인 특화권역으로 나누었다.

특정구역의 핵심 내용은 간판 크기를 작게, 수량을 적게 설치하는 것으로 업소당 2개 이내, 가로형 간판은 3층까지 설치토록 하고 입체형 간판설치를 권장하며, 건축주는 건물의 분양·임대할 시점에서 계약서 등에 간판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아산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기 위해 의견을 듣고자 6월 29일까지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 도시디자인과 가로환경디자인팀에서 접수받고 있고 아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행정예고 공고 중에 있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당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은 중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표시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표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광고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점차적으로 홍보 및 제도활동과 함께 시민의 광고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집까지 배달해드립니다!

아산시 여권 택배서비스 실시

아산시는 6월 16일부터 여권사무대행 기관으로서 여권업무를 개시하면서 여권을 집으로 보내주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민의 여권을 안전하게 집까지 배달하기 위해 아산시와 아산우체국이 특별배송 협약을 맺었다.

택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여권을 신청할 때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지에 수령할 곳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요금은 착불로 건당 3,000원이다. 여권

은 발급되는 다음날 배송이 시작된다. 다만 여권의 안전한 배달을 위하여 본인 사전 동의 없이 임의 위탁배달은 금지되며 수취인 사정으로 2회 시도 후에도 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시정으로 회송처리 된다.

아산시는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음식물료 폐기물 종량제로 시범 실시

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감량을 위해 2009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전에 실시하던 월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고 제도적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운양6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내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돼 왔고 또한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 배출량이 간소를 유도하

고 처리비 절감을 위하여 종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시에서는 종량제 시범 실시에 들어가는 운양6동 1,022세대(음식점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수거용기,납부필증 부착량, 안내문 등 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친 상태로 7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마다 전용수거용기에 첨첨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앞으로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산시 전지역 확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물론 깨끗한 도시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백리 고불 맹사성 동상 제막식

청렴결백과 창조정신을 시민 및 공직자의 사표로...

13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앞 시민공원에서 강화북 아산시장을 비롯하여 기관단체장 및 시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불 맹사성의 동상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아산시는 조선시대 500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틀을 굳건히 한 고불 맹사성 정승의 위업을 기리고, 특히 맹사성 정승의 청백리정신과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25만 시민과 1400여 아산시 공직자의 사표로 삼고자 동상을 건립하게 됐다.

맹사성 동상은 시민공원의 조형물, 수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시청 앞 시민공원에 건립되어 있어 공직자의 사표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시는 고불 맹사성 정승 동상제막식에 대한 공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교원 대학교 이장범 교수 외 6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 1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각가 권치규 선생이 작품을 선정하였다.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전준 교수, 맹사성 정승 표준영정 작가인 동강 권오

창 선생의 자문을 받고 다산조형연구소 권치규 선생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완성하게 되었다. 총286,000원원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높이 4m인 인물주물군상, 6.7m의 아치형 조형물, 3m의 화강석 시비 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번지에 위치한 맹씨행단에는 조선시대 청백리 고불 맹사성 정승이 살던 고택과 쌍행수, 세터사가 있으며, 고택은 고려시대 충신인 충민공 최영 장군이 살던 집으로 우리나라 민가중 제일 오래되었으며 「忠孝世業(충효세업)清白家聲(청백가성)」이란 열조대왕의 어저사액이 현존하고 있다.

고불 맹사성 정승(1359~1438)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의 상신으로 5부판서와 좌, 우의정을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문정공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늙아가지자 7월간 단식하고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판서와 정승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검은 소를 타고 피리블며 다닌 우리나라 대표적 청백리러 그의 이름이 높을 뿐이다.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뽕나무 오디 단지 조성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농촌전통테마 마을인 내이랑 마을에서 오디수확이 한창이다.

누에 사육 감소로 뽕나무의 용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오디가 웰빙식품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임경래)는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 및 건강식품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디뽕나무 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진흥청과 업계에 따르면 오디는 각종 효능 입증과 함께 단맛이 일품인데다 무 농약과 친환경 작물로 인식되면서 술과 잼, 제빵 등의 원료로 인기가 높으며 과즙 음료로 판매하는 회사도 등장할 만큼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아산시농업기술센터의 오디

뽕나무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농가가 참여하여 오디뽕나무 재배를 시작한 후 2년 만에 수확을 하였다. 생산량은 10a(300평)당 1톤 정도로 올해 농가 수매가격이 5,000원(kg)에서 5,5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500만원에 달한다. 수도자와 비교해 볼 때 수익이 60~70만원(10a)이어서 최고 9배에 달하는 셈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오디는 노화억제 물질인 C3G와 혈당강하 성분, 불포화지방산(87%) 및 혈중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리놀산, 고혈압 억제물질인 루틴성분 등이 함유된 것으로 입증됐다.

한편,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한 오디뽕나무 재배방법을 개선,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외암리 민속마을에도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 농촌체험마을에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 접목

국내 최초로 농촌지역인 외암리민속마을에 최첨단 u-IT기술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어 유비쿼터스의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올 전망이다.

외암리민속마을이 농촌지역의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부(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2008년도 u-IT 확

산 공모사업'에 'u-농촌체험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제안하여 u-농촌관광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외암리민속마을을 최첨단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적용해 화재나 위급 상황시 문화재와 인명을 보호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내자가 없어도 스스로 매니메이션, 동영상, 음성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농촌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현된다.

또 국내 농촌관광마을 간 여행 허브 사이트를 연결하여 유·무선인터넷을 통해 마을과 연계한 관광코스 예약은 물론 특산물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하게 구축된다. 이번 사업은 국비 6억 8천만원과 도비 1억원을 포함, 모두 7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농촌체험관광을 직접 즐기는 가족여행이나 유비쿼터스와 농촌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학교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비쿼터스 시대에 미래의 u-농촌 표준모델로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산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및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평생학습도시 아산시가 2008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촉진시켜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모하는 학습프로그램은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된 발전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평생교육 관련 우수프로그램으로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로 받는다.

접수처는 아산시청 주민자치과 평생학습담당이며 제출서류는 지원사업신청서 3부, 지원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ROM 1매로 신청서 양식은 아산시 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공공자문회에서 다운로드 된다.

신청 자격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신규운영 계획 중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아산시의 지원 규모는 총 47,500원인 것으로 프로그램 단

최대 4백만원 내이며 1기관·단체에 1 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상 공모분야로는 평생학습진흥프로그램(시민 공동체 교육, 민주시민의식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아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아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소외계층 학습프로그램(장애우, 새터민, 노숙인 등 사회적외 프로그램), 고용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창업 및 직업교육 등)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특정지역,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기관·단체의 정기총회, 행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내부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후보자 지지, 낙선운동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등이다.

문의: 아산시청 주민자치과
평생학습담당 ☎540-2854
▶아산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www.asanlle.go.kr

결혼이민자 가족들 온천나들이

한국문화 체험하고 아산스파비스에서 즐거운 시간 가져

아산시 지역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가족 40여명은 지난 6월 17일(주)금호리조트 아산스파에서 워터파크 물놀이와 입욕문화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산스파비스(대표이사 김봉규)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였으며 참가한 가족들은 온천문화를 체험하고

워터파크의 물놀이 시설에서 가족들과 함께 누적된 피로를 말끔히 씻고 가족간의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맛있는 한국음식을 먹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가졌다.

아산스파비스는 향후에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벤트를 계속 추진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 주었다.



▶▶▶ 읍면동 소식

“안전펜스에 꽃향기가 가득한 온양2동” [페추니아 꽃밭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꽃길]



안전펜스에 꽃향기가 솔솔— 온양2동(동장 이성연)은 삼정아파트에서 어의정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 안전펜스에 페추니아 꽃 박스를 설치하여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화사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그동안 온양2동은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꽃을 식재하는데는 어려움을 느껴오던 중 2007

년부터 어의정로와 이순신대로에 꽃 박스와 화분을 설치하는 등 관내 전 지역 공원 화사업 추진에 항상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식재된 페추니아는 아르헨티나가 원산지로 예쁘기도 하지만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계속해 오고가는 시민과 학생들이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할 수 있어 공원이나 화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꽃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온양2동 꽃길은 아름다운 공원 못지않은 편안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온양3동『두드림』제7회 수원화성 주부국악제입상” [얇은반사물 부문 3위, 주부동아리부문 5위]



온양3동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두드림』이 수원시,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제7회 수원화성 주부국악제에서 주부동아리부문 전체5위, 얇은반사물에서 3위에 입상했다.

6월 14일과 6월 15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 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벌어진 이번 주부국악제는 주부전문부, 주부동

아리부부 나뉘어 있으며사물, 서바피구, 창작타와 미유/무용부에서 전국 주부들이 경연을 벌였으며, 온양3동 풍물교실 『두드림』은 주부동아리부 얇은반사물 부문에 출전하여 입상한 것이다.

이번 대회를 대비해 풍물연습실과 신정호아의음악당에서 행 연습을 한 『두드림』의 장복연 단장은 “김진한 온양3동장, 강영구 주민자치위원장등의 지원과 회원들의 성실한 연습으로 이번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음봉면 주민자치회 저수지 살리기 구슬땀” [저수지 3개소에 흥련, 백련 3천본 식재]



아산시 음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음봉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저수지 살리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민자치회(위원장 황규혁)는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까지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음봉면주민자치위원 20여명이 본인 일처럼 음봉면 관내의 신희, 월랑, 신수저수지에 흥련 1,000본

백련 2,000본을 각각 나누어 심었다. 연은 저수지내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꽃이 이쁘다워 깨끗하고 이쁜저수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음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생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끼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안전 아산지점] 아산 시내 주요도로 지중화 공사로 주민협조 요청

■ 안전 아산지점은 오는 6월 말부터 아산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중화 공사구간은 터미널 ~ 시민로사거리 ~ 아산시청과 한사랑병원 ~ 온양주유소 구간이며 약 2.8km입니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공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도로 굴착을 최소화 시킬 예정이며 공사준공 예정일은 12월말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 아산지점 (☎ 041-539-3222) |

[건강보험 EDI (전자문서 교환방식) 가입안내]

■ 건강보험 EDI 서비스란 ?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종 신고 및 신청등의 발급신청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자력신고, 보험료등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 서비스입니다.

▶ 가입 자격

-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기관)

▶ 가입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KT EDI 홈페이지(www.ktedi.com)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 041-538-5120~27) |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분

- 1,000㎡ 이상(약300평)의 농지를 경작하는 분
-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분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

-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분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620,000원 이상 : 27,900원 (연간 334,800원)
- 기준소득월액 620,000원 이하 : 9,900원~27,900원(분위 부형률의 1/2 정률지위)

■ 신고방법

- 농지원부 있는 분 : 농지원부 제출
- 농지원부 없는 분 :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서식, 이·봉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

■ 유의사항

- 국고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국고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입니다. 본인부담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하여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 041-550-8836) |

'온천의 도시 아산 제2전성기를 향해'

'아산 스파비스' 대형 파도풀, 레이스 슬라이드 규모 갖추고 대변신 휴식, 놀이, 건강 3요소를 고루 갖춘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7월 1일 개장

온천의 도시 아산이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찬 도약답기를 했다. 이는 동양 4대 유황온천으로 이름난 도고온천 내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와 국내 최초의 온천수를 이용한 테마온천으로 잘 알려진 아산스파비스가 대변신을 하고 오는 7월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개장한다.

또한 온양온천 역사를 중심으로 온천을 주제로 한 명품테마공원이 조성된다.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 체인인 파라다이스 호텔을 운영하고 이있는 파라다이스 그룹이 휴식, 놀이, 건강 등의 3요소를 고루 갖추고 온천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 시설의 보안온천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를 오는 7월 1일 개장한다.

총 2만 5,437㎡ 규모에 최대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가족형 테마파크 온천시설로 실내는 1,950.71㎡ 규모로 바데풀 시설이 있으며 6,346.15㎡ 규모의 실외 온천풀에는 유수풀, 키즈풀,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휴양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남녀 온천탕과 노천탕, 테라피 마사지 시설 등은 특급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누적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 낼 수 있으며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특이할 점은 매일 남녀온천 대욕장을 교환하여 음양의 조화를 통해 양성(兩性)의 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일본 황실에서 사용하던 히노끼(檜木나무)탕도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의 특별함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히노끼탕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마치 삼림욕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줘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

또한 1991년 관광지로 지정된 아산온천 단지 내 아산스파비스는 국내 최초의 온천수를 이용한 신 개념의 테마온천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졌으나 그동안 최신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이 줄어들었으나, 이번에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7월 18일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대욕장에는 3,500명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며 계절에 따라 딸기, 석, 솔잎, 인삼, 허브를 이용한 23개의 이벤트탕과 기능탕을 이용할 수 있다.

11,000㎡의 부지 위에 워터파크 추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워터파크에는 1,000명이 동시수용 가능한 75m 대형 파도풀과 4명이 동시에 출발하여 경주하는 100m 레이스 슬라이드, 스릴만점 125m 개방형 튜브/바디 슬라이드와 파도치는 유수풀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아쿠아 플레이가 설치되며, 물놀이를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푸드코트/스넥코너, 6개의 대형 파고라, 100여개의 파라슈, 100여개의 천텐베드가 파도풀 옆에 설치되어 물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아산스파비스는 29,700㎡ 약카 5,600개 1일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사계절 대형 테마온천/워터파크로 새롭게 태어난다.

1300년 전통의 온양온천은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조선시대 여러 임금이 온궁을 짓고 휴양이나 병의 치료차 머물렀던 곳으로 아직도 온양관광호텔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아산시는 12월 수도권 전철 개통과 더불어 온양온천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온천을 주제로 한 명품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족욕체험장, 바닷분수, 워터미러 등 다양한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힐드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아산은 온천도시로써 화려했던 전성기를 향해 부활을 꿈꾸며 꿈이 아닌 현실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 아산스파비스 조감도

2008

Midsummer Night
Sinjungho Festival &
Starlight film Festival

신정호축제

별빛영화제

한여름밤

2008. 7. 8 ~ 8. 23

영화상영_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공연_ 매주 금요일, 토요일

신정호 관광지 야외음악당

주최_ 아산시

주관_ (사)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Tel_041 548 1326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